



예방접종 전면중단, 나는 이렇게 생각인데...
진만 의견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후에 문제점은 없을까?

대개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종식된 돼지콜레라에 대한 예방접종(이하 “백신”)을 돈육 주요 수입국인 일본에서조차 중단하게 되자 최종 발병 후 2년이 채 안된 우리 나라도 백신 중단을 서두르고 있다.

돼지콜레라 비발생 선포를 위한 준비를 마친 일본에 대한 돈육 수출 중단이 구제역 발생으로 앞당겨지면서 양돈 업계에서는 조속한 수출 재개가 최대 관심사이지만, 무모한 백신 중단조치는 오히려 2년간의 공을 수포로 돌리는 엄청난 화를 자초할 수가 있지 않을까?

어차피 생산원가가 비싼 데다가 국내 유통업체끼리의 “제 닭 잡아 먹기식” 수출 경쟁으로 이중고를 겪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수입품과 품질 및 신선도로 경쟁하는 것이 오히려 출혈도 적고 안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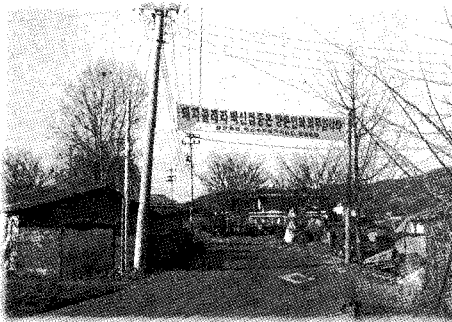
지도 모른다.

82년도에 돼지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창궐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은 아마 백신 중단을 대단히 두려워 할 것이다.

백신을 철저히 했다는 15,000두 규모의 어떤 농장 돼지가 6,000두만 남았고, 모두가 백신을 맞고 유산을 하는 등 정부 통계는 40,000두라고 했지만, 그 열배는 넘었으리라는 추산이 지배적일 정도로 공포감을 증폭시킨 한 해였다.

그 후에 백신의 유통 체제를 개선시키고 철저히 접종한 덕분에 폭발적인 발생은 더 이상 없었지만, 변이형으로 추정되는 만성 콜레라가 야외에서 확인되고 있고 적은 규모의 발생이 숨겨지고 있을 지도 모르는 데 항체 보유율

홍 문 표 수 의사
문성농장대표



▲경기 용인시 포곡면에 설치된 돼지콜레라 근절 플래카드

▼양돈농가들이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한 백신 100% 접종을 결의하고 있다.



후지 등의 소비 촉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사료비 등 원가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우리의 양돈 산업의 자생은 가능할 것

이 전국적으로 80% 이상을 유지했다고 해서 야외 바이러스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행히 백신 중단 초기에 발병한다면 대책을 빨리 수정할 수도 있고 피해를 줄일 수도 있겠지만, 6개월 이후에 발병한다면 모든 돼지가 감수성이 있어 무서운 전염 속도 때문에 손 쓸 사이가 없을 것이다.

만일 이 엄청난 지도 모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입안자인 정부에 의해서 충분히 주어진 다 하더라도 그 여운은 크게 남아 양돈 생산 기반이 뿌리채 뽑힐 수도 있으며, 백신마저 준비되지 않는다면 보상액은 정부 예산만으로는 감당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백신 중단 정책은 정부에서 결정하여 집행하고 발병의 책임을 사양가에게 돌릴 예정이라면 이를 따라줄 사양가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며 정부와 정책 불신 풍조는 더욱 증폭될 것이 뻔하다.

다행히 다른 나라에서는 8~10년에 걸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종식시킨 돈 콜레라를 단 2년만에 종식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양돈업계에 엄청난 행운이지만 성공 가능성은 필자의 예상으로는 20%이상 줄 수가 없다. 백신 중단이 공식화된 일본도 아직 접종을 고집하는 농장들이 있어 접종을 안하고 불안해 하기 보다는 차라리 접종하는 수고를 택하도록 자율에 맡겼다.

어차피 구제역과 콜레라가 비발생의 혜택을 받아 수출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생산원가가 우리나라의 60~70%밖에 안되는 미국, 덴마크, 네델란드 등과의 수출경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고 오히려 수입육과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비인기 부위인 등심과

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조사료까지 수입을 해와야 하고 바다와 여행객 보따리를 통한 고기의 밀수가 쉬운 지리적, 사회적 여건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가축 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북한과 대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구제역처럼 상재한 감염원보다는 오히려 수입 병원체에 의하여 재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아직도 콜레라 발생국이라는 오명을 하루 빨리 벗는 것이 국가적 체면을 살리고 양축가의 심적 부담을 덜어 주는 최대 과업이지만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실패하는 것 보다는 "둘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는 것이 안전" 하지 않을까. **양돈**

특집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문제점은 없는가?